

스포츠 포커스

‘선동열 후예’ 32명... 세계 무대 향해 댄다

무등중 야구부

선동열(삼성라이온즈 감독)·김병현(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김종국·이현곤·곽정철(이상 KIA 타이거즈)·정성훈(LG)·박재홍(SK)·강정호(넥센).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야구 스타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광주 중화야구 명문 무등중(교장 이종현) 출신이라는 것. 이들이 누비던 무대가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을 거쳐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까지 이를 만큼 최정상급의 기량을 갖춘 에이스들. 프로야구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태극마크를 달고 뛰면서 국가의 명예와 함께 모교의 위상도 한껏 올려놓은 자랑스러운 ‘무등인’들이다.

선배들이 쌓아놓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운동장을 누비는 32명의 어린 후배들이 있다. 바로 무등중 야구부이다.

봄벌에 검게 그을린 피부와 불을 쫓는 진지한 눈빛에서 무등인의 자긍심이 담겨있는 듯 하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무등중 야구부는 기본기에 충실하고, 탄탄한 팀워크를 다지는 진정한 야구 꿈나무팀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오는 6월 대통령기중화야구 본선 진출 티켓을 따게 최우선 목표이다. 올 시즌 무등중야구부의 성적표는 예년에 비해 다소 부진하다. 소년체전 예선·춘계대회 등 지역대회에서 정상권 진입에 실패하는 아픔을 맛보았다.

무등중야구부 김성일 감독은 “지난해 주전급 선수들의 잦은 부상과 학교 공사로 인한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했던 게 전력 약화를 초래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선수들

의 강한 의욕이나 투지는 여느팀에 뒤지지 않은 만큼 기량을 조금 더 보충하면 예전처럼 강팀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의 얘기처럼 훈련 중인 선수들의 표정과 행동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운동 중에 느릿느릿 걷는 선수는 보이지 않는다. 운동장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불을 모을 때에도 견지않고 달리면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비록 지고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팀이다.” 주장을 맡고 있는 김경엽(3년)이 짧고 명료하게 밝힌 야구부의 특징이다.

하루 훈련 중 타격연습에 더 주력하는 무등중 야구부의 훈련에서 색다른 점이 눈에 띈다.

운동장 양쪽 끝에서 타격훈련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3학년 선수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1·2학년 선수들이 서로 마주보며 불을 쳐내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두가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첫째,



무등중 야구부는 내달 열리는 대통령배중화야구 본선진출을 목표로 하루 5시간씩의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현·이현곤·박재홍 등 ‘스타의 산실’ 최우선 목표는 대통령기 본선 티켓 확보 치고 던지고 달리고... 하루 5시간 맹훈련

선수들이 방망이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둘째, 저학년 선수들은 선배들의 타격 모습이나, 타구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보완할 점도 체크하게 되는 효과

가 있다는 것이다. 야구부는 현재 3학년 11명, 2학년 11명, 1학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하루 5시간씩 강도 높은 훈련을 실

시한다. 또 단체훈련이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자습시간’도 갖는다.

주장 김경엽은 파워와 타격감이 좋아 4번 타자를 맡고 있다. 지난 문화관광부장관기 예선에서 6타점으로 타점상을 받았던 김경엽은 득점장에서도 제 몫을 다해내는 팀의 에이스. 타격의 테크닉만 조금 더 보완하면 ‘큰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김 감독은 평가한다.

‘안방’을 책임지고 있는 포수 윤준현은 강한 어깨로 도루 저지율이 높고, 계임을 읽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이다. 타격감도 뛰어나 타순 3·5번을 지키고 있다.

투수 장민호는 직구 제구력이 좋은데다, 체인지업까지 갖췄게 장점이다. 몸의 유연성이 뛰어나 지난 문화관광부장관기 예선에서 2개업 완투승을 거두기도 했다.

신장 180cm의 투수 박병현은 팀내 최장신 이면서 주력도 좋아 도루 성공률이 아주 높다. 박병현은 조금만 보완하면 고교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선수로 꼽히고 있다.

3투수 진현규는 파이팅이 넘치고 파워가 좋아, 팀에 사기를 높이는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1972년 창단해 38년의 전통을 이어온 무등중야구부는 그간 전국소년체전·청룡기대회·문화관광부장관기 대회 등 전국대회에서 술하게 우승했던 명실상부한 야구명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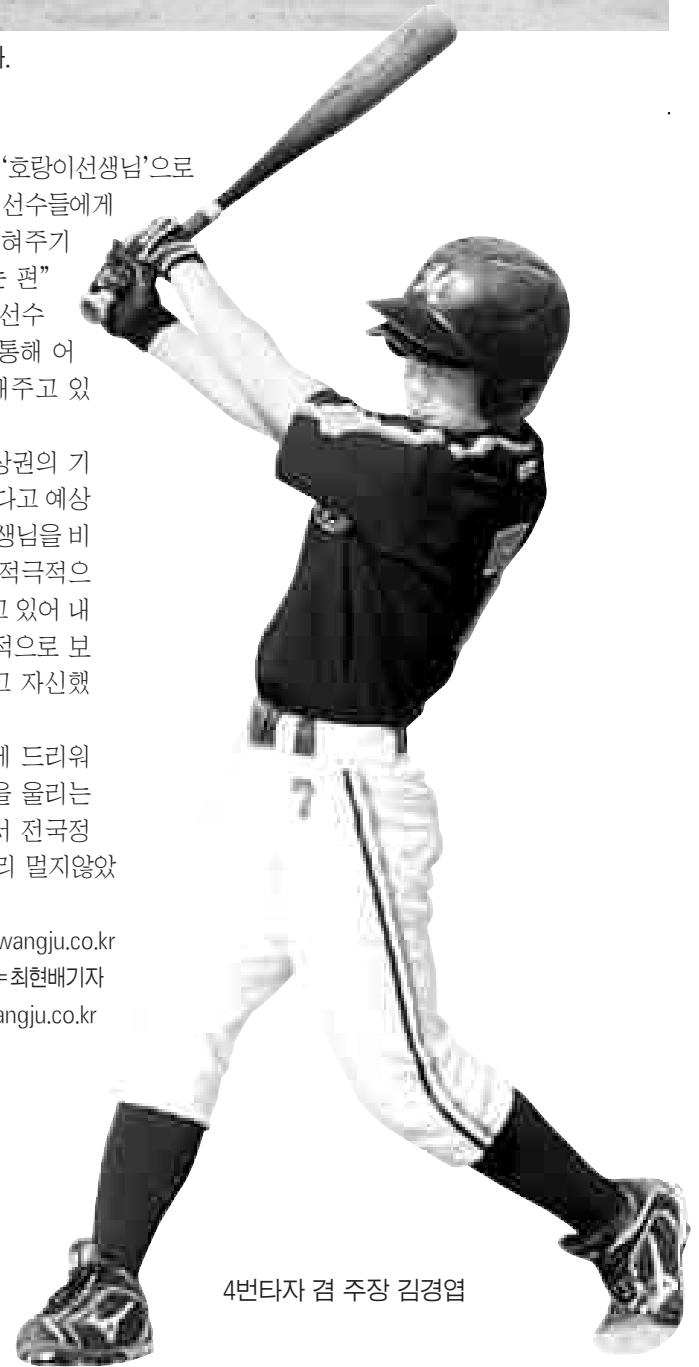
이러한 명성 뒤에는 9년간 팀을 이끌어오고 있는 명장 김성일 감독의 든든한 뒷받

이 있었다. 훈련 중에는 ‘호랑이선생님’으로 변하는 김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본기를 확실하게 익혀주기 위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편”이라면서 “운동 후에는 선수들의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어려움을 듣고, 조언도 해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내년쯤에는 전국 정상권의 기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예상하는 김 감독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해 주고 있어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어느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오후 무등중운동장을 울리는 야구부의 힘찬 함성에서 전국정상상을 되찾는 시간이 그리 멀지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번타자 겸 주장 김경엽



선동열 등 화려한 야구스타를 배출한 무등중 야구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끈질긴 승부 근성을 키우며 매일 힘찬 파이팅을 외친다.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적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상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제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근대한별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사무실,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since 1985. CH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5기) 5월 14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천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매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絡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 중의계(5년) 졸업증과 침구사, 종의사, 추나사 자격취득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미국 한의대편입(3~4년),NCCAOM고시 응시자격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